

특수형 화물자동차 신규공급 허가

전주시, 청소용 차량·석유수송용 탱크로리 등 제한 풀어 일자리 창출 기대

전주시가 특수형 화물자동차의 신규 공급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전주시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및 특수작업형 화물자동차에 대해 필요 시 신규공급을 허가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신규공급허용 차량은 청소용·살수용 차량, 석유수송용 탱크로리, 최대 적재량 100톤 이상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등의 특수용도형 화물차와 사다리차, 고소작업차 등의 특수작업형 화물자동차이다.

시는 그간 특수형화물자동차에 대해 매년 허가대수와 허가조건을 제한해

일부만 공급해왔다. 이는 지난 2004년부터 국토부 총량제에 의해 화물차의 신규공급이 제한되면서 화물차 허가권에 프리미엄이 형성되고, 프리미엄 편취 등을 위해 서류 위·변조를 통한 대폐차 신고, 불법개조 등을 통한 불법 등록·증차, 특수차량을 일반차량으로 불법 개조하는 등 공급목적과 다르게 운영하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다.

시는 최근 화물차 대폐차 관리시스템 구축과 허가조건 자동차등록원부 기재 등 불법행위 사전방지시스템이 구축되고, 불법의심차량 전수조사 등을 통해 불법행위가 감소하고 있어

규제를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국토부 특수형 화물자동차 공급계획시달에 따른 자체계획을 세우고, 다음 고시가 확정될 때까지 특수형화물차 신규공급으로 민원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송준상 전주시 시민교통과장은 "이번 신규공급 허가 조치로 업계의 안정적인 영업여건이 조성되고 신규일자리가 창출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면서 "이번조치와 더불어 신규허가차량이 불법 개·변조되어 불법운행하지 않도록 사후조치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재 기자



맥도날드 미래형 매장 첫 선 맥도날드는 지난 28일 서울 삼암DMC점 오픈과 함께 고객들에게 최상의 레스토랑 경험을 제공하는 '미래형 매장(Experience of the Future)'을 선보였다. 이

고산미소 한우 할인행사 내일 열려

'2년전 가격으로 드립니다!' 주제로 최대 20% 할인

전국한우협회 완주군지부와 완주한우협동조합이 2016년 '한우 먹는 날'을 기념하여 다양한 행사를 준비한다.

전국한우협회 완주군지부는 11월 1일 대한민국이 한우 먹는 날임을 소비자에게 인식시키고 나아가 한우산업에 대한 완주군민의 인식 전환을 꾀하기 위해 한우고기나눔, 한우요리시연회, 한우그림그리기, 깜짝 경매 등의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한다.

특히 11월 1일 고산미소시장에서는 선착순 500여명에게 한우국밥을 무료로 제공하는 등 소비자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이벤트가 마련된다.

또한 완주한우협동조합 고산미소 한우 매장에서는 최근 경제 불황과 한우가격 상승으로 한우를 의면하

는 소비자들에게 믿을 수 있는 한우를 공급하고 한우소비시장을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오는 11월 6일까지 할인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이번 할인행사는 '2년 전 가격으로 드립니다!' 주제로 1등급 기준 국거리 17,000원 등심 3만6,000원 등 15%에서 최대 2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할 계획이다.

완주한우협동조합 조영호 이사장은 "고산미소한우를 3년 동안 지켜준 소비자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손해를 보더라도 보답하는 의미로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며, "향후 한우산업의 발전을 위해 생산자와 소비자가 모두 만족하는 한우를 공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원주=이종복 기자

식품외식업계, 할로윈에 풍당 빠지다

버거킹 할로윈 기념 치킨프라이 스페셜 패키지 2종 출시 등

최근 국내에서도 서양의 대표적 명절 할로윈(Halloween)을 즐기려는 사람들이 증가하며 점차 대중화되고 있다.

특히 할로윈이 젊은 층을 대표하는 하나의 파티 문화로 떠오르며 관련 의상, 액세서리, 소품 등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국내 한 오픈마켓에 따르면 이벤트·파티 용품 판매량 증가율(전년대비)이 2014년 15%, 2015년 31% 등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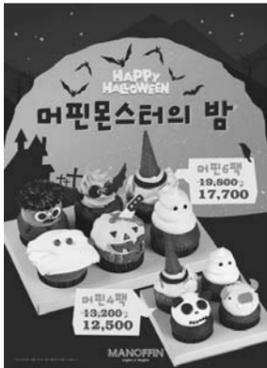
이에 따라 식품외식업계에서도 할로윈 홈파티를 즐기려는 소비자들을 사로잡기 위해 할로윈 기념 제품을 잇따라 출시하고 있다.

햄버거 브랜드 버거킹은 할로윈 시즌을 기념해 할로윈 치킨프라이 스페셜 패키지 2종을 출시했다. 이 제품은 기존의 치킨프라이 캐릭터를 할로윈을 상징하는 해골과 유령으로 형상화했다.

특히 할로윈 분위기에 잘 어울리는 색상과 디자인으로 패키지를 개발해 할로윈 홈파티 소품으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시카고 수제 팝콘 브랜드 가렛팝콘샵도 할로윈 홈파티를 즐기려는 소비자들을 위해 해골 헬러인 패키지를 마련했다.

할로윈 분위기를 물씬 느낄 수 있



커피&머핀 전문점 마노핀은 할로윈 캐릭터 머핀 8종을 선보였다.

컬트를 걸면 더해 헬러인 분위기를 생동감 있게 표현했다.

커피&머핀 전문점 마노핀은 할로윈 대표 몬스터 캐릭터인 유령, 박쥐, 마녀, 호박 등으로 깜찍하게 데코레이션 한 할로윈 캐릭터 머핀 8종을 선보였다.

달콤한 딸기잼으로 속을 채운 머핀에 빨간 눈의 미이라를 표현한 '미라몬', 유자청을 품은 유자머핀 위에 마녀의 초코 모자를 장식한 '초록마녀' 등 다양한 몬스터 캐릭터를 축출한 머핀 위에 담아냈다.

특히 할로윈 몬스터 캐릭터로 파티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킬 수 있는 파티 음식으로 즐길 수 있을 뿐 아니라, 파티 소품으로도 이용 가능하다.

마노핀 관계자는 "이번 할로윈 머핀 신제품은 어린이뿐 아니라 어른들도 먹고 즐길 수 있는 귀여운 몬스터 캐릭터 제품"이라며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할로윈 데이를 마노핀과 함께 마음껏 즐겨보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시스

구독문의 288-9700

내달 1일부터 도시가스 요금 6.1% 인상... 평균 1758원 ↑

다음달 1일부터 도시가스 요금이 평균 6.1% 오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한국가스공사의 승인요청에 따라 내달 1일부터 도시가스 요금 평균 6.1% 인상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도시가스 요금 인상은 지난해 9월 이후 1년 2개월 만에 처음이다.

산업부는 이번 요금 인상으로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약 1600만 가구의 가구당 월평균 요금이 3만2427원에서 3만4185원으로 1758원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산업부는 "요금에 적용되는 환율이 하락했지만, 국제유가의 상승으로 누적된 인상요인을 '원료비 연동제'에 맞춰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 요금 인상 이후 환율은 달러당 1172원에서 1106원으로 5.6% 하락했다. 하지만 유가는 배럴 당 36달러에서 45달러로 약 25% 상승했다.

도시가스는 요금의 약 80%를 차지하는 원료비 항목을 액화천연가스(LNG) 국내 도입가격에 연동해 조정하는 원료비 연동제를 운용한다.

국제유가·환율 등 LNG 국내 도입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반영해 홀수월마다 원료비를 산정한 후, ±3%를 초과하는 변동요인이 있으면 요금을 조정했다. 이번 요금인상에 따라 모든 용도 평균 도시가스 요금은 내달 1일부터 현행 13.4309원/MJ에서 0.8164원/MJ 인상된 14.2473원/MJ로 조정된다.

/김민근 기자

인터넷으로 수입쇠고기 불법 해동판매 여부 확인 가능해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안전정보포털(www.foodsafetykorea.go.kr)을 통해 냉동 전환된 수입쇠고기가 불법으로 해동돼 판매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28일 밝혔다.

수입쇠고기 냉동전환 확인 서비스는 ▲수입업체명 ▲제품명 ▲원산지 ▲수입당시 날짜·냉동제품 여부 ▲유통기한 ▲냉동전환 신고일 ▲냉동전환수량·중량 ▲냉동전환실시·완료일 등 정보를 제공한다.

소비자는 식품안전정보포털에서 제공하는 '수입쇠고기 냉동전환 확인' 서비스에 '수입쇠고기 이력번호'를 입력·검색하면 된다.

수입쇠고기 이력번호는 수입쇠고기의 유통이력 관리를 위해 수입 단계에서 수입쇠고기에 부여하는 12자리 번호를 말한다.

축산물 수입영업자는 수입 냉동쇠고기를 냉동 제품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지방식약청장에게 사전 신고를 해야하며 냉동으로 전환된 제품을 해동해 판매하면 안 된다.

/김민근 기자

1인가구 증가로 컵푸드 인기

1인가구가 증가하면서 식품외식업에 컵푸드 바람이 불고 있다. 양 많고 큰 것을 구매하면 다 먹지 못하고 버리게 되는 1인가구를 겨냥한 제품들이다.

지난 28일 식품외식업에 따르면 합리적 소비를 추구하는 1인가구의 소비패턴에 따라 소용량의 컵포장 식품들이 인기를 끌고 있다.

실제 시장조사전문기업 마크로밀 엠브레인의 트렌드모니터가 지난해 5월과 올해 7월에 걸쳐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소비자 10명 중 9명(90.4%)은 소용량 식품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반면 소용량 식품이 별로 필요하지 않을 것 같다는 의견은 6.2%, 전혀 필요하지 않을 것 같다는 의견은 0.3%에 불과했다.

공식생들이 적은 비용으로 짧은 시간에 후다닥 먹던 '컵밥'은 더 이상 노랑집의 전유물이 아니다. 혼밥족 등이 늘면서 간편식 시장에도 '컵푸드' 바람이 불고 있다.

풀무원식품의 '컵 안의 맛있는 두부 한끼'는 두부와 다양한 토핑을 얹어 즐길 수 있는 제품이다.

저칼로리 건강식품인 두부를 곁에 담아 즐길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으로, 식사 또는 다이어트용으로 좋다.

/뉴스시스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주지방경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덕진동 1가) 전주지방경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jvs.or.kr *전자우편 : jjvs@hanmail.net